

우리나라 철강재 수출입 구조 분석

채영배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병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철강재 수출 물량은 1994년 11.9% 감소한 데 이어 1995년 2.2% 감소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4월까지 10.8%(금액 기준) 감소하였다. 반대로 수입 물량은 1994년 28.4%, 1995년 18.4%, 1996년 1~4월 48.5%로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재 무역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1993년 24.6억 달러에 이르렀던 철강 무역 흑자는 1994년 2.3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고, 1995년에는 적자 규모가 6.8억 달러, 그리고 금년 1~4월까지 8.7억 달러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철강재 무역수지의 악화 원인을 품목별·지역별 수출입 구조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아울러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되면서 수출 부진과 수입 확대가 복합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기초 소재로서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철강 산업은 수출 감소세와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철강 산업의 무역수지는 금액 기준으로 볼 때 1993년 25억 달러 흑자에서 1995년 6억 8,000만 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중량 기준으로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동기기간중 113만 톤에서 933만 톤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4월까지 철강 제품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8억 8,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1년 동안의 적자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철강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철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4년 3.6%에서 1995년에는 6.8%로, 그리고 금년 1~4월까지 14.5%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 무역수지의 악화

100

들어 무역수지 적자는 74억 달러를 넘어 정부가 당초에 설정했던 70억 달러를 이미 초과해버렸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급속한 악화는 최근 몇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효자 역할을 했던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제품이 엔저와 원고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

〈표〉 철강 제품¹⁾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만 톤, 100만 달러)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1~4월)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출	1,155	6,613	1,107	5,527	995	7,246	322	2,007
수입	1,268	4,419	1,628	5,758	1,928	7,928	745	2,879
수지차	-113	2,464	-611	-231	-933	-682	-423	-872

자료: 한국철강협회.

주: 1) 철강 완제품 = 철강 1차 제품(조강류, 판재류, 주단·주물류)+철강 2차 제품(철구조물, 와이어 로프, 강선).

철강 제품 = 빌렛, 슬래브, 블룸.

기타 제강 원료 = 고철, 합금철, 선철 등 모든 철강 제품을 포함한 것임.

품목별 수출입 구조의 분석

1993년까지만 해도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철강 산업이 왜 이제는 수입 의존적인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 철강재 수출입 구조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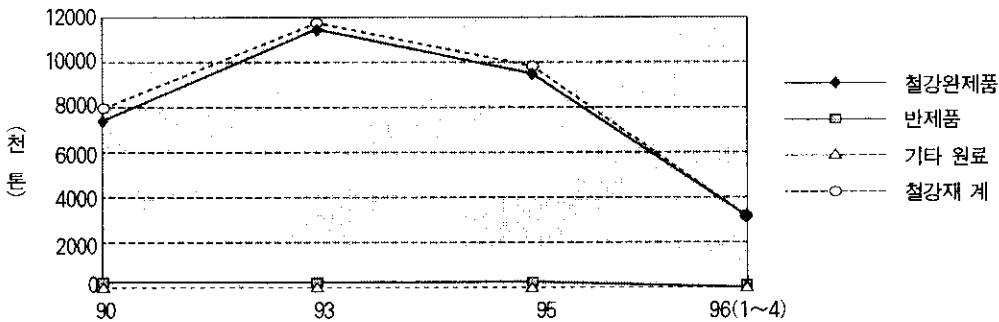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원료와 반제품을 수입해서 철강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수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전기로를 중심으로 철강 설비의 확대가 두드러진 1994년부터 철강 산업의 교역수치는 모든 품목에 걸쳐 크게 악화되어왔다.

우선 철강 1차 제품의 경우, 수출 물량이 1990년 688만 톤에서 1993년 1,064만 톤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881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철강 1차 제품에다가 철강 2차 제품, 반제품, 기타 원료를 포함한 철강 제품 전체의 수출도 같은 기간중 782만 톤에서 1,155만 톤으로 증가했다가 995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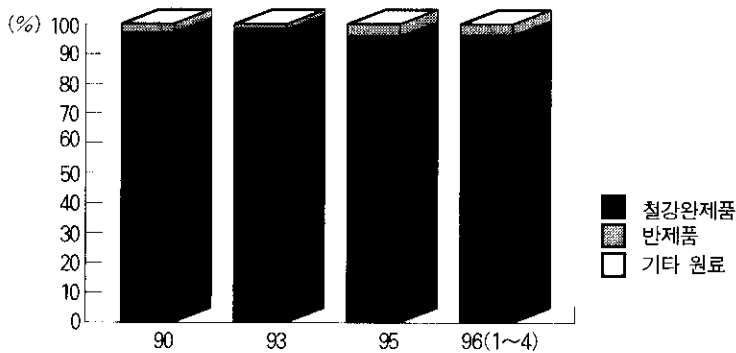
특히, 철강 제품의 수출 구성비를 보면 1990~95년간 철강 2차 제품을 포함한 완제품의 수출 비중이 95~97%로 압도적이고 반제품의 비중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철강재 수출은 철강 완제품 중에서도 철강 1차 제품이 주도(전체 수출의 88~92% 점유)하고 있다. 특히, 철강 1차 제품중 판재류의 수출 비중이 76%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철강재 수출의 부진은 판재류의 수출 부진으로 설명된다. 판재류 수출량은 1993년 875만 톤에서 1995년 756만 톤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수 활황에 따라 판재류 공급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철강재 수입은 완제품 수입이 1990년 452만 톤에서 1993년 309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1995년 76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3~95년간 철강 완제품 수입 증가량 457만 톤 가운데 판재류 수입 증가량이

(그림 1) 철강 제품의 수출 추이



〈그림 2〉 철강 제품의 수출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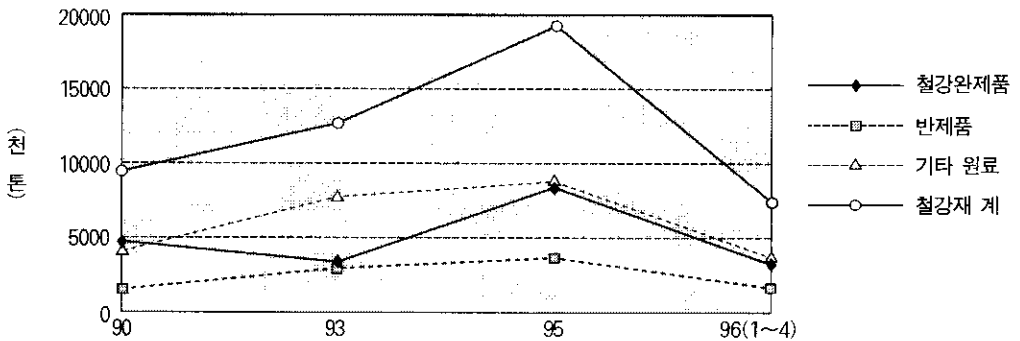


347만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판재류의 내수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 능력 부족에 기인한다. 그리고 전기로 주도에 의한 철강재 증설에도 불구하고 1993~95년간 전기로의 주종 품목인 소강류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거의 배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기로 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기로 주도에 의한 철강재 생산 증가는 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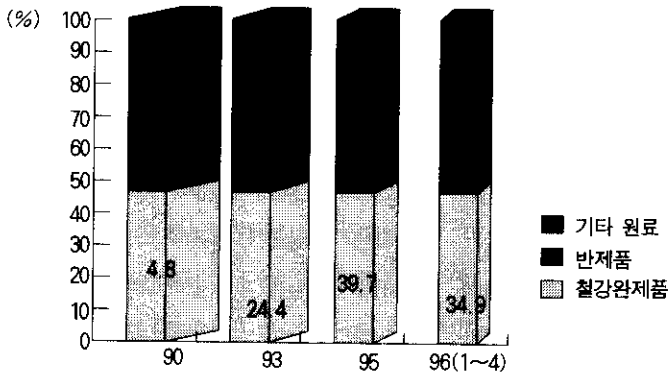
류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한편, 판재류 수입량 급증, 판재류의 소재인 슬라브를 비롯한 강반 제품의 수입 급증과 함께 전기로의 원료인 고철과 선철 등 철강 원료의 수입 급증을 초래했다.

수입 구조의 악화는 품목별 수입 구성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1990년 전체 철강재 수입의 48%에 이르렀던 완제품의 수입 비중은 1993년에는 24.5%로 줄어들고 반면에,

〈그림 3〉 철강 제품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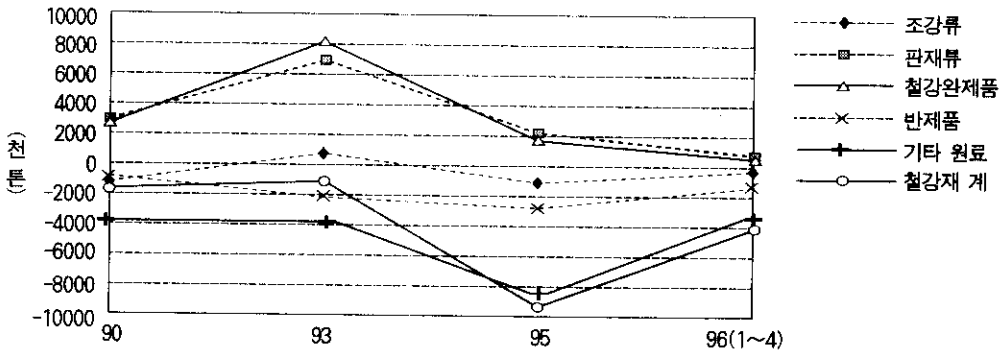
(그림 4) 철강 제품 수입 구성비



鋼半 제품이나 기타 원료 등의 수입 비중은 52%에서 75.5%로 높아져 철강 수입 구조가 저부가가치 제품인 鋼半 제품이나 기타 원료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철강 완제품의 수입 비중이 39.7%로 다시 높아져 개선되었던 철강 수입 구조가 다시 악화되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철강 제품 가운데 가장 가공

단계가 길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해당하는 판재류의 수입 비중이 1990년 31.8%에서 1993년 14.5%로 툭 떨어졌다가 1995년에는 재차 27.5%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철강재 수출 감소와 수입 급증 추세에 따라 1995년 철강재 무역수지는 판재류와 철강 2차 제품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조강류, 강반 제품, 기타 원료에서 모두

(그림 5) 철강 제품 무역수지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재 전체로는 무역 적자의 규모가 1993년 112만 톤에서 1995년에는 933만 톤으로 크게 급증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수출 부진과 수입 급증이 계속되어 1~4월 중 철강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 악화가 두드러진 품목은 완제품 중에서는 형강과 선재류, 중후판이며, 강판 제품과 기타 원료 등의 무역수지 적자폭도 더욱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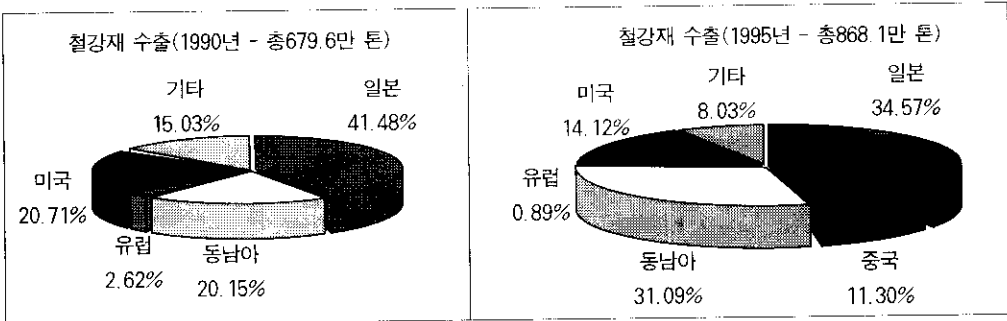
지역별 수출입 구조의 분석

철강재 수출의 경우, 일본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0년 61.7%에서 1995년에는 중국을 포함하는 경우 77%으로 높아진 반면, 他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은 반덤핑 규제 등 수

입 규제의 강화로 同기간 중 23.7%에서 15%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중 20%에서 42.4%로 배가되고 있어 이들 지역이 수출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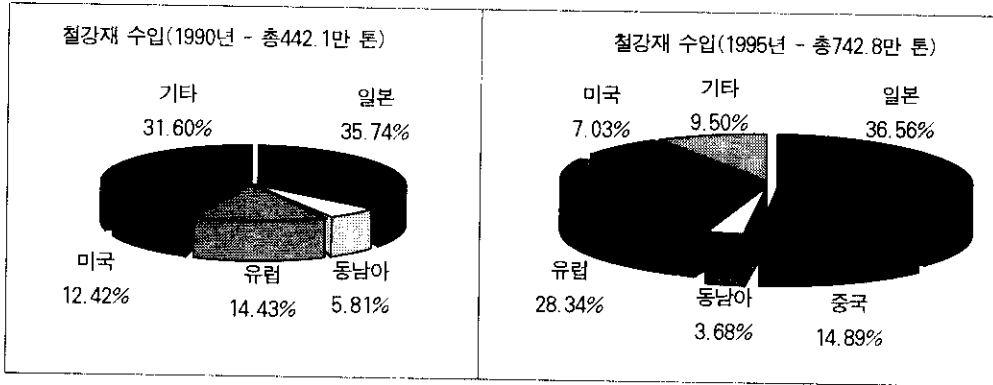
실제로 중국과 대만을 포함하는 동남아 지역은 고성장 지역으로 철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철강 수출국들의 치열한 수출 경연장이 되고 있다. 1994년 현재 이들 지역의 철강재 수입 수요는 5,792만 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同년 이들 지역에 441만 톤의 철강재를 수출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7.6% 수준이다. 이것은 이들 지역에서의 경쟁국인 일본의 21%는 물론 지리적으로 불리한 브라질이나 EU의 7.5%와 9.2%에 비등하거나 못미치고 있다. 1995년에는 수출 주력 제품인 판재류의 수출 부진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였을

(그림 6) 철강 1차 제품의 지역별 수출 구조



주: 1) 1990년 중국 자료는 중국과의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파악되지 않음.
 2) 동남아 자료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수입 통계임.

〈그림 7〉 철강 1차 제품의 지역별 수입 구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철강재 수입은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1990년 35.7%에서 1995년 36.6%를 점유해 여전히 제1의 수입 국가가 되고 있으며, 이밖에 중국, 동구,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산 급증에 의해 이들 지역의 수입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부족한 고부가가치 강재들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 능력이 있는 저급강 분야에서는 중국, 동구, 러시아의 저가 수입산에 의해 국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맺음말

한국철강협회가 최종으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철강재 1차 제품 수출은 1994년 -12%의 성장에 이어 1995년에도 -6.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은 1994년 80.3%의 폭

등세에 이어 1995년에도 40%나 급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재 수출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철강 1차 제품의 수출은 조강류가 32.4%나 감소하고, 철강 1차 제품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판재류 수출도 1.6%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조강류와 판재류가 각기 25.2%, 48%의 급증세를 나타냈고 강판 제품과 철강 원료도 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1994년과 1995년 2년에 걸쳐 철강재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도 수출입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실정이다. 금년 1/4분기 중 철강재 수출은 5.5%의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저가품 수입이 51%나 폭증하는 가운데 철강 재고가 급증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철강재는 자본재 산업의 기초 소재로서, 철강재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가 수입품의 확대는 자동차, 조선, 기계, 전기 전자 등 철강 수

요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저가 수입 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철강 시장의 유통 질서를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화를 선도해 온 철강 산업이 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 철강 시황의 부진, 국내 경기 둔화 현상, 엔低와 원高에 의한 경쟁력의 저하, 저임금을 배경으로 한 후발 철강 개도국들의 추격 등 여러 요인을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요인은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한 본질적인 요인은 철강 산업의 투자가 전기로 부문에 집중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철강재의 가격 파괴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력있는 철강재를 안정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철강 수출의 확대는 물론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수출 선도산업으로서 순기능을 수행하여왔다. 특히, 판재류 부문은 보통강의 경우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강의 경우에도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일본을 대신해 세계 제일의 철강 수출국으로 발

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국제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산업의 성격이 강한 전기로 부문으로 철강 투자를 유도하여왔다. 그 결과 전기로 조강 생산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판재류의 공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동시에, 조강류는 생산 확대와 저가의 수입산 급증으로 생산 과잉을 유발하는 철강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철강 산업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과 만성적인 무역 역조를 보이는 부문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조강류의 경우, 저가 수입산에 대해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화를 유도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는 선재류의 경우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판재류 부문에서도 공급 부족을 주도하고 있는 중후판과 열연강판의 공급 능력의 확대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이들 품목의 생산 확대는 이들 제품과 슬래브 등 반제품의 수입 절감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의 차공정 제품인 냉연 판재류와 표면 처리 강판의 수출 공급 능력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 HRI